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일시	[4 주차]	모임장소	구글미트
팀명	수세미와 풍풍	참여 학생	모세미, 박소현, 신지은, 오재원
진도	도서명: 레버리지	진도페이지: p.182 ~ p.251	

토론 내용

<4주차 내용 요약>

4장은 후천적 부자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총 6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장에서는 리더와 팀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인적 레버리지 개념과 팀원들간의 피드백과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장에서는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조언을 언급하고 있다. 세 번째 장에서는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조직 구성원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네 번째장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돈을 대하는 태도와 더불어 돈으로 돈을 버는 여섯가지 단계를 소개하고 있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작가가 만든 공식을 소개하고, 돈의 종류를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장에서는 이때까지 전개한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였다. 그 후 조원들과 총 3가지 질문을 통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당신이 리더였던 적이 있나요?>

책의 초반~중반까지는 어떻게 성장해야하는지에 대해 다루었다면, 4장에서는 어느정도 성장한 후 리더가 어떻게 경영해야하는지 풀이하고 있다. 이에 자신이 리더였던 경험이 있는지 나누고자한다.

오재원 - 사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때까지 리더를 단 한번도 맡은 적이 없다. 용기내어서 혹은 어거지로 회장 선거에 나갔지만 떨어졌었다. 하지만 21살부터 말언니라는 책임감을 배우면서 리더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 후 대학에 진학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거의 모든 수업에 조장을 맡게 되었고, 동기들이 나를 믿고 지지해주고 있구나. 느낄 수 있었다. 더불어 내년 과대를 해보는 것이 어떻냐고 제의도 받았다. 내 자신이 책임감이 없고, 리더로써 자질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21년도에 뿌듯함과 자존감이 많이 상승하였다.

모세미 - 고등학교 시절 회장을 맡은 적이 있다. 재원이처럼 조별과제에서 주로 조장을 맡은 편이다.

박소현 - 많은 경험은 없지만, 현재 들불이라는 동아리 회장을 맡고있다. 또 이번 독서 토론 조장을 맡고 있다.

신지은 - 21년도 2학기 동아리 임원을 맡았었다. 교회 내에서 셈 리더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 중고등학생 시절 경연대회에서 조장을 빈번히 맡았다.

<리더였을 때(혹은 팀원 내에서)갈등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혹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팀원 내에서 갈등은 쉽게 마주칠 수 있다. 이에 어떻게 극복을 하였는지 풀이하고자한다.

오재원 - 팀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선 차분히 모두의 의견을 들어본다. 그 후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옳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 그 후에 한 의견씩 장점보다는 단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떤 단점이 가장 리스크가 큰지 토론한 후에 하나씩 소거해간다.

모세미 - 팀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개인적으로 진술한 이야기를 나눠본다. 그 후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

견을 순화해서 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소현 - 갈등이 발생했을 때, 예전에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한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말하는 편이다.

신지은 - 팀원 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먼저 모두의 의견을 차분히 들어본다. 그 후에 한 의견을 지지하는 편이다.

<해보고 싶은 사업 아이템이 있나요?>

오재원 - 인스타 웹툰 _ 최근 들어 지인들에게 웹툰을 제작하는것이 어떻냐는 제의를 많이 받아 생각하고 있다.

초상과 그려주는 서비스 _ 최근 증명사진도 개인 소장용으로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필 사진을 찍는 유행이 돌고 있다. 서양화라는 전공을 살려, 단순 사진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직접 그림으로 제작해주면 재미있을 것 같다.

모세미 - 포토스튜디오 _ 최근 하루필름이나 인생네컷이 유행하고 있는 요즘, 내가 직접 인테리어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았으면 좋겠다.

박소현 - 구체적인 사업아이템은 없지만,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을 찾고 있다.

신지은 - 죽은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장례식 _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애도하는 것과 더불어, 장례식에서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짜로 제작하여 그 사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하면 좋을 것 같다.

※ 사진상 좌측의 인물부터 이름을 하단에 표기할 것.

인증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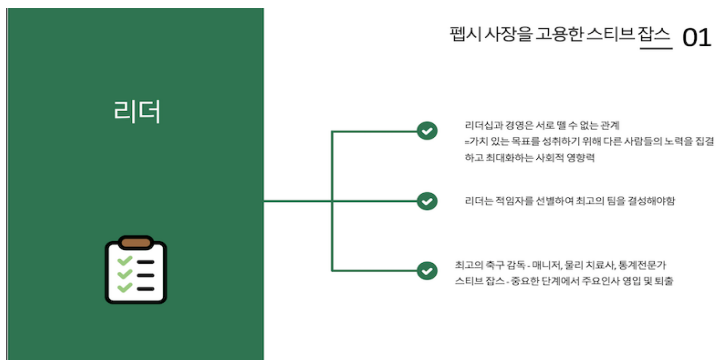


신지은, 모세미

박소현, 오재원



신지은, 박소현
모세미, 오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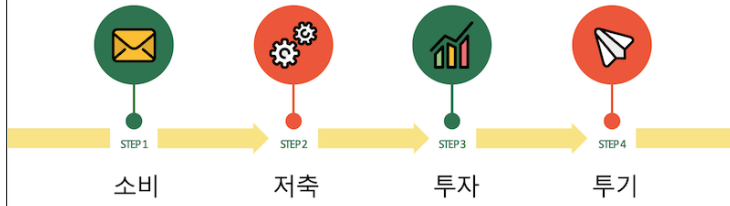
타인의가치속에서자신을발견하라 02

지시와부여의차이

구성원들이 프로세스를 만들고 계획하는 일에 스스로 참여하게 하고, 발언권을 갖게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그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게 하라

구성원이 항로를 벗어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진행 방향을 확인하라

돈으로 돈을 버는 여섯 가지 단계



누군가 부를 얻으면 누군가는 부를 잃는다 05

돈의 종류

